

[2020 주식시장 분석 시리즈]

빅데이터로 본 주식투자 전성시대 첫 번째. 《전국민 투자 시대의 시작》

2020. 12



올해 주식 시장의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연초부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코스피는 기어코 2600선을 돌파, 안착에 돌입했고
육만전자로 불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엠포스에서는

전례없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주식 시장에
과연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 시장, 넓게는 금융 시장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2020년의 주식 시장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2020 주식 시장 분석』은 시리즈로 기획되어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 4편으로 발행 예정

-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2020년 3월 증시 대폭락 직전까지의 상황을 심도있게 짚어봄

발행 예정 시리즈
(*분석 과정 중 변경 가능)

1편) 증시 대폭락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코로나 이후 증시 폭락 시점 동안 발생한 투자 심리 및 투자 과정 개괄



이번 보고서

2편) 신규 유입자, 그들은 누구인가?

- 주식 투자 신규 유입 단계 및 유입층 구분 (성/연령별 검색 시점 차이 등)
- 투자 타겟층 별 검색 키워드 변화 과정 탐색

3편) 새로운 투자 시대의 도래, 트렌드 진단

-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 과거와의 비교
- 소비성향,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 영향 진단

4편) 주식 시장에서의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할과 과제

- 기존의 주식 데이터 외 개인의 투자 행동을 파악,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탐색

활용 데이터 소개

- SNS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 등을 활용한
2020년 새롭게 발생한 『주식 투자 붐』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 01 >

SNS데이터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등 SNS에서
언급된 내용

< 02 >

네이버 검색트렌드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 추이를
지수화한 데이터

< 03 >

Desk Research

다양한 통계와 논설,
언론 기사 자료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증시 대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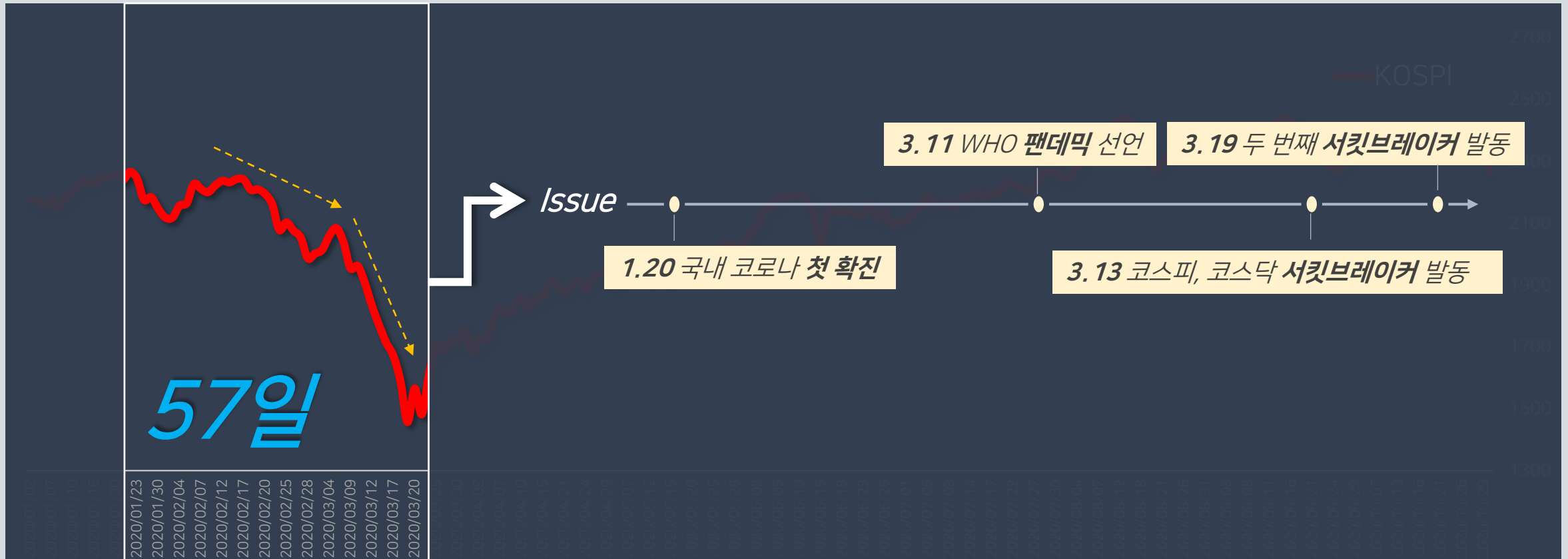
(코스피 기준, 1월 22일 최고점 / 3월 19일 최저점 / 3월 23일 반등)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장장 **57일** 동안의 내림막

(2020년 1월 22일 - 2020년 3월 19일)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3월 13일과 19일 사상 최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美 9·11 테러 이후 19년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 코스피 지수가 1684.93p로 전일 (1834.33p) 대비 149.40p(8.14%) 폭락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2020. 3. 13.

세계증시 연쇄 충격...코스피·코스닥 첫 '동시 중단'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는 것으로, 이후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코스피에선 미국 9·11

2020. 3. 13.

코스피·코스닥 폭락 지속...역대 2번째 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 - 매일경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19일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또다시 발동했다. 국내 양대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두 번째다. 19일 ... 코스피가 장중
2020. 3. 19.

이후 138일 동안의 예상치 못한 반등을 거쳐 195일 만인 8월 4일, 드디어 이전 수준으로 회복

1월 22일 코스피 2267.25선을 8월 4일(2279.97)에 회복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주) 회복 기간은 코로나 국내 첫 확진일(2020.01.20) 부터 ~ 폭락 이전 최고점(2020.01.22를 기준)에 최초 도달한 일자까지의 일 수를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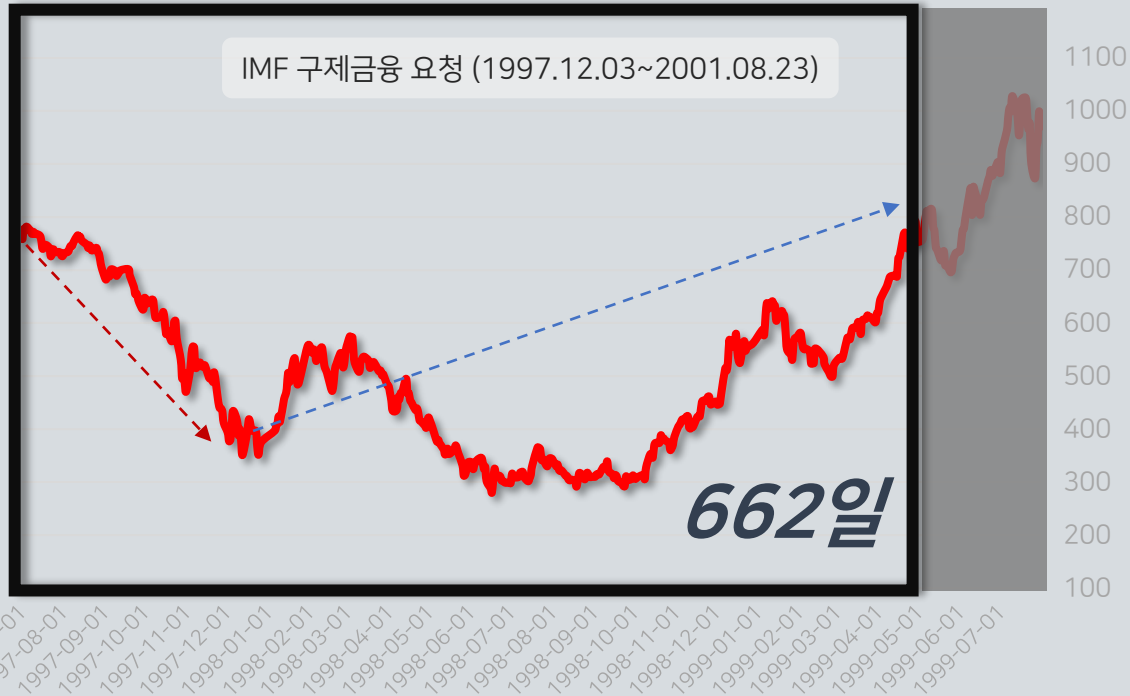
57일 간의 폭락

AND

195일 만의 회복

코로나19의 여파와 유사 사례로 회자되는 IMF 회복 기간은 **662일**, 금융위기 회복 기간은 **873일**

97년 IMF



(IMF 이전인 97년 7월 최고점 97년 7월 4일 이후
해당 수준을 99년 4월 27일에 회복)

08년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 08년도 최고점 08년 5월 16일 이후
해당 수준을 10년 10월 6일에 회복)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하락은
 두 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악재 속에서도
 이례적인 속도로 정상 회복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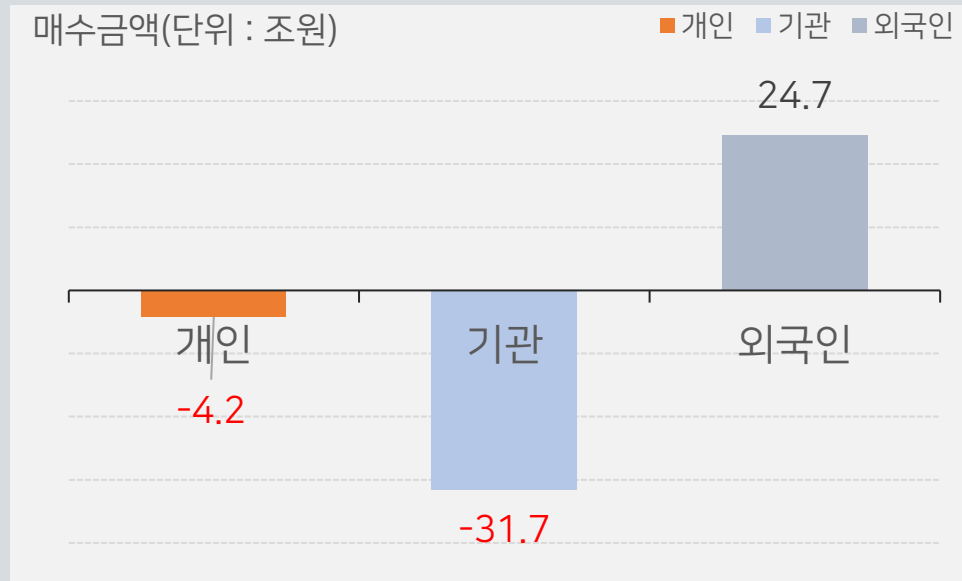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시장 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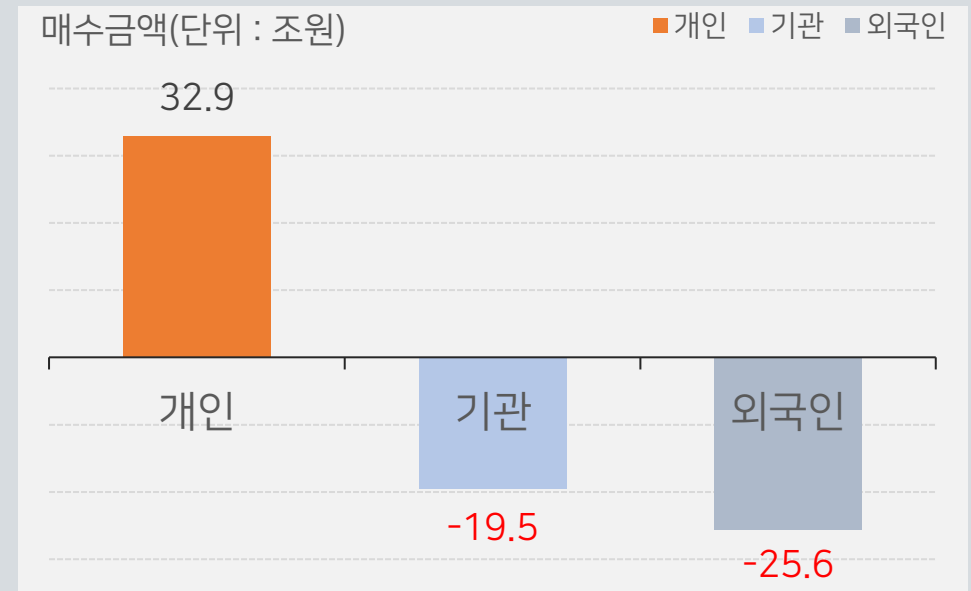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가장 극명한 차이는 **개인의 순매수세**
 즉, 개인이 시장 회복을 **주도**했다는 것

'08년 금융위기



(2008. 5.16~2010.10. 6, 개인 / 기관 / 외국인 별 순매수 금액)

'20년 코로나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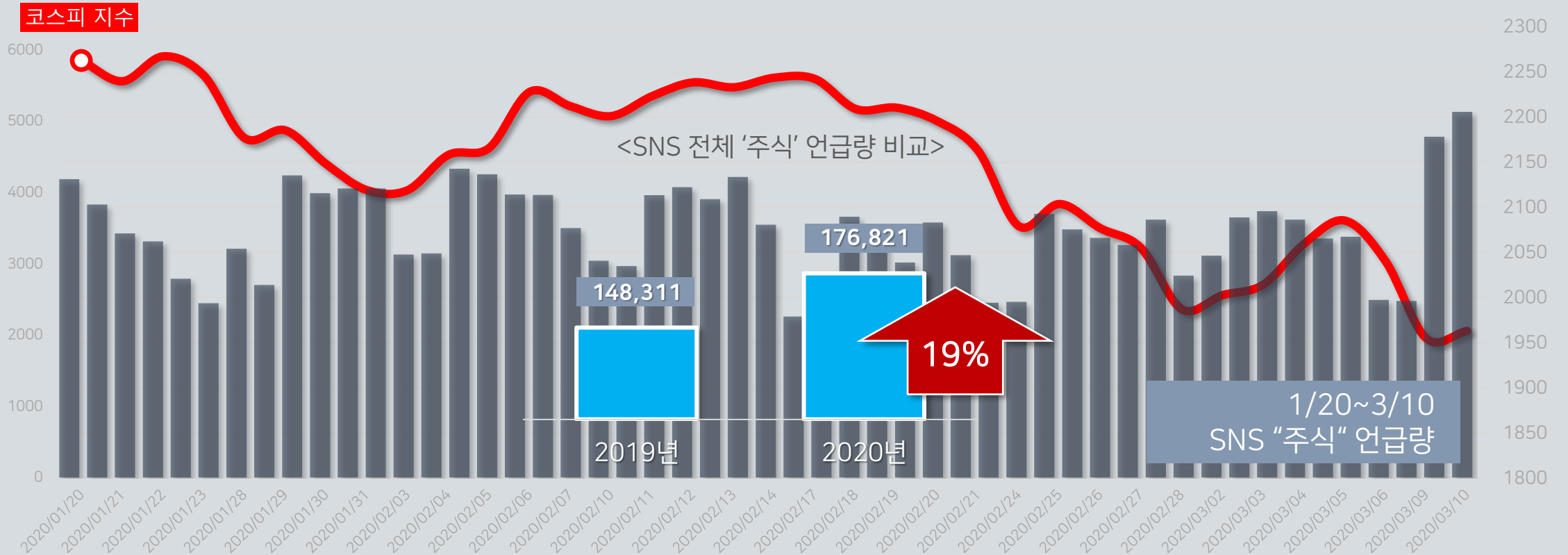
(2020. 1.22~2020. 8. 4, 개인 / 기관 / 외국인 별 순매수 금액)

*Source: 투자자별 코스피 순매수금액, 네이버금융

코로나 국내 첫 확진 부터 WHO 팬데믹 선언일까지 이미 SNS 상에서 『주식』은 큰 화두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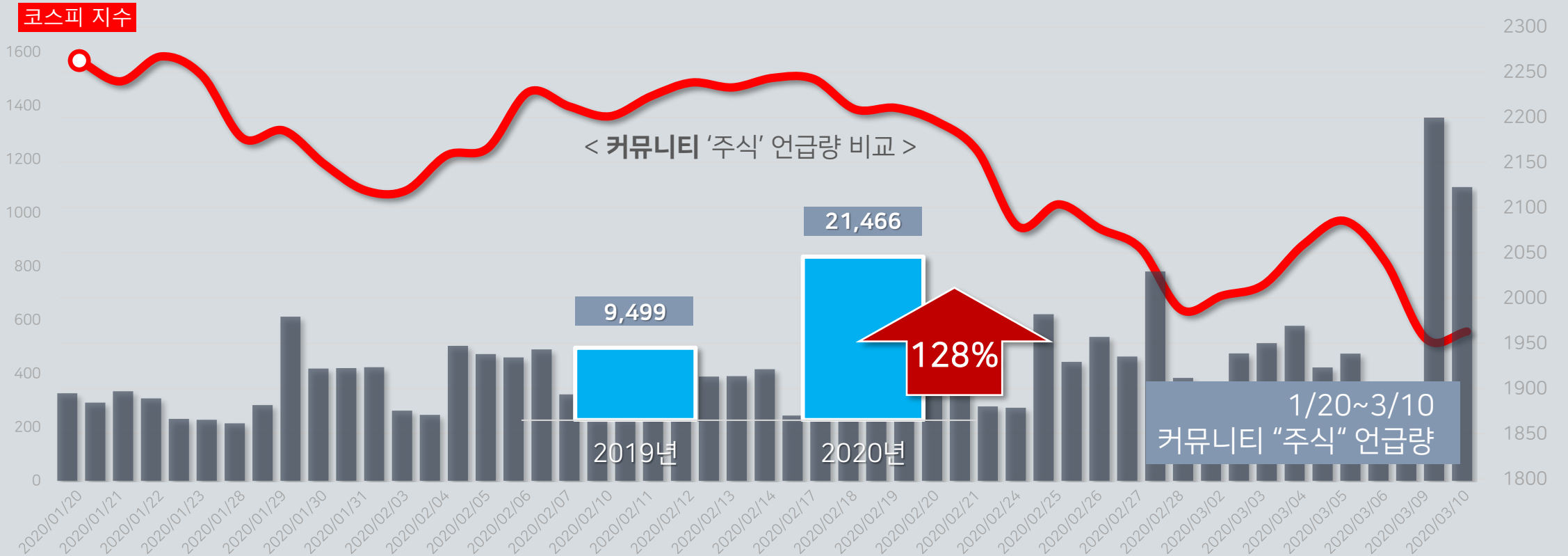
*Source: SNS 언급량(RT 제외), 소셜메트릭스

주) 코스피 지수는 공휴일 데이터가 없는 바 전체 일 단위인 SNS 데이터와는 동 기간 동안(1/20~3/10)의 단순 추세 확인만을 요망

특히,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전년대비 무려 2배 이상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Source: 커뮤니티 언급량, 소셜메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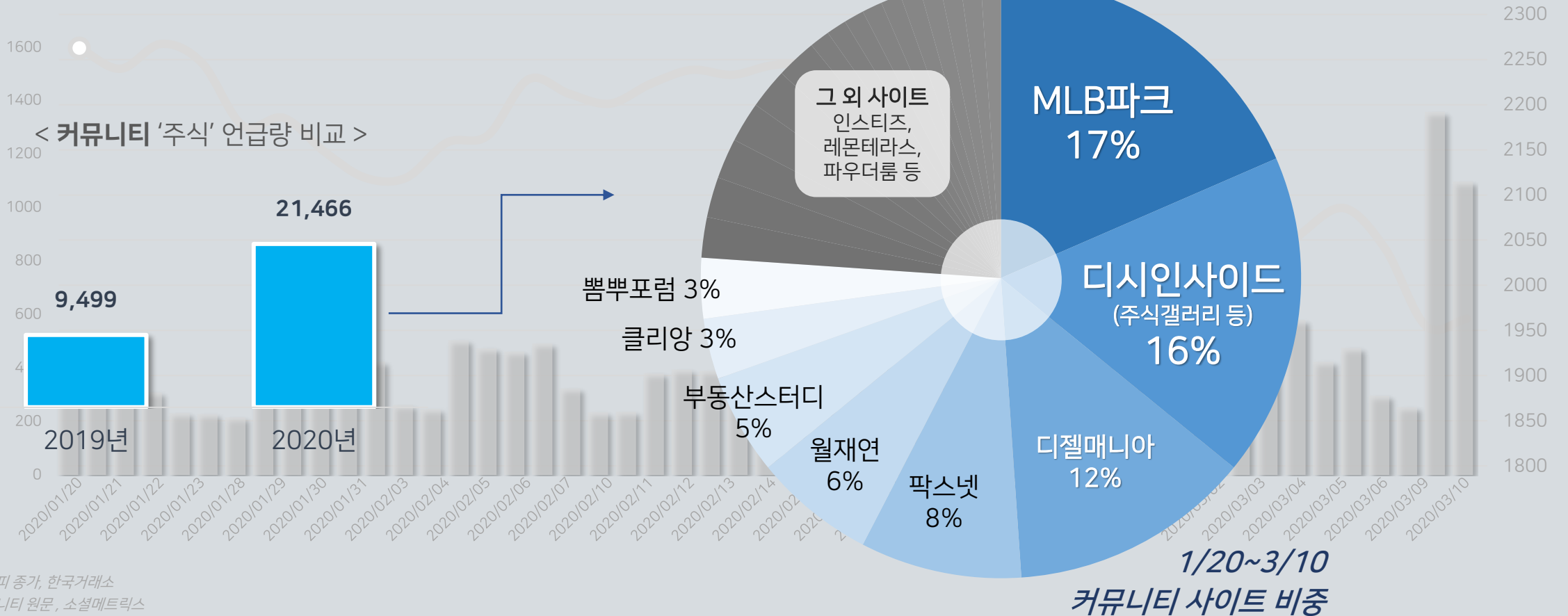
주) 코스피 지수는 공휴일 데이터가 없는 바 전체 일 단위인 SNS 데이터와는 동 기간 동안(1/20~3/10)의 단순 추세 확인만을 요망

이들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로 구성

(경제/주식 관련 커뮤니티, 갤러리 위주에서 다수 언급)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Source: 커뮤니티 원문, 소셜메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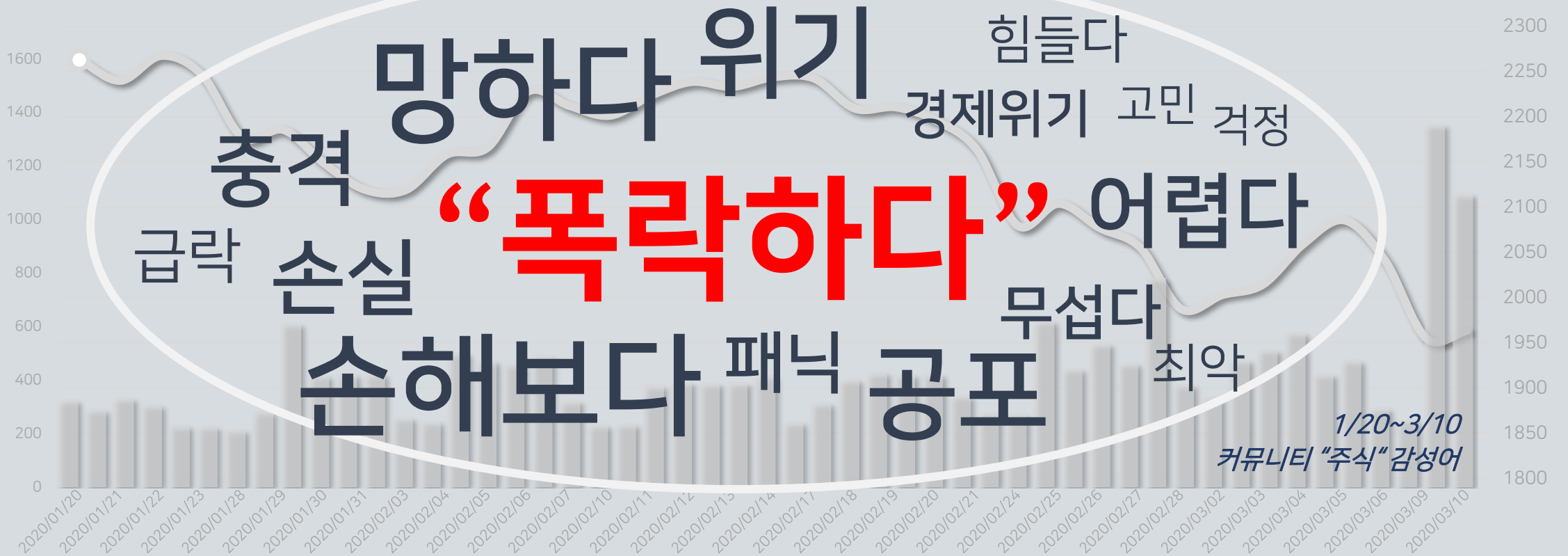
이들이 **당시** 했던 얘기들을 좀 더 들여다 보자!

(1월 20일 코스피 2262.64 : **코로나 첫 확진** → 3월 10일 1962.93 : **팬데믹 선언 D-1**)

폭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에게 찾아온 공포감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Source: 커뮤니티 감성어, 소셜메트릭스

주) 코스피 지수는 공휴일 데이터가 없으므로 동 기간 동안 전체 일단위인 SNS 데이터와는 단순 추세 확인만을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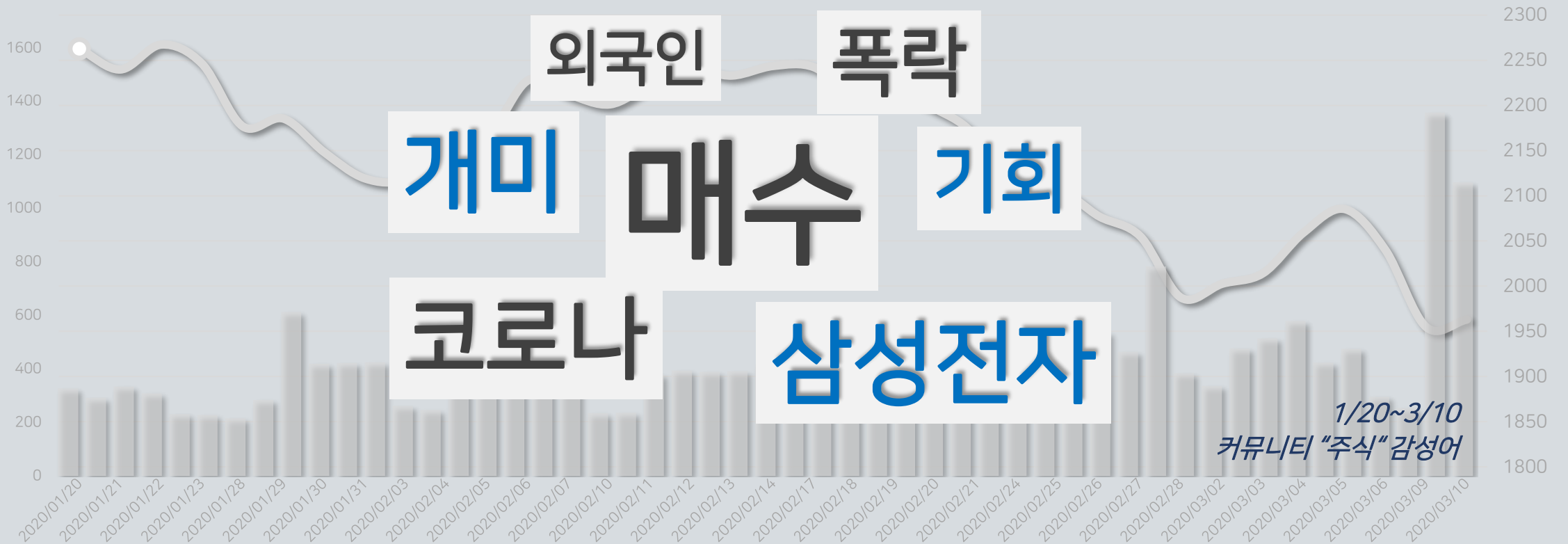
그런데 이미 준비 태세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폭락**은 뭐다..?

“기회”

다가오는 공포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Source: 커뮤니티 연관어, 소셜메트릭스

주) 코스피 지수는 공휴일 데이터가 없으므로 동 기간 동안 전체 일단위인 SNS 데이터와는 단순 추세 확인만을 요망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시작!

“외국인은 팔고,
개미는 산다.”

“폭락은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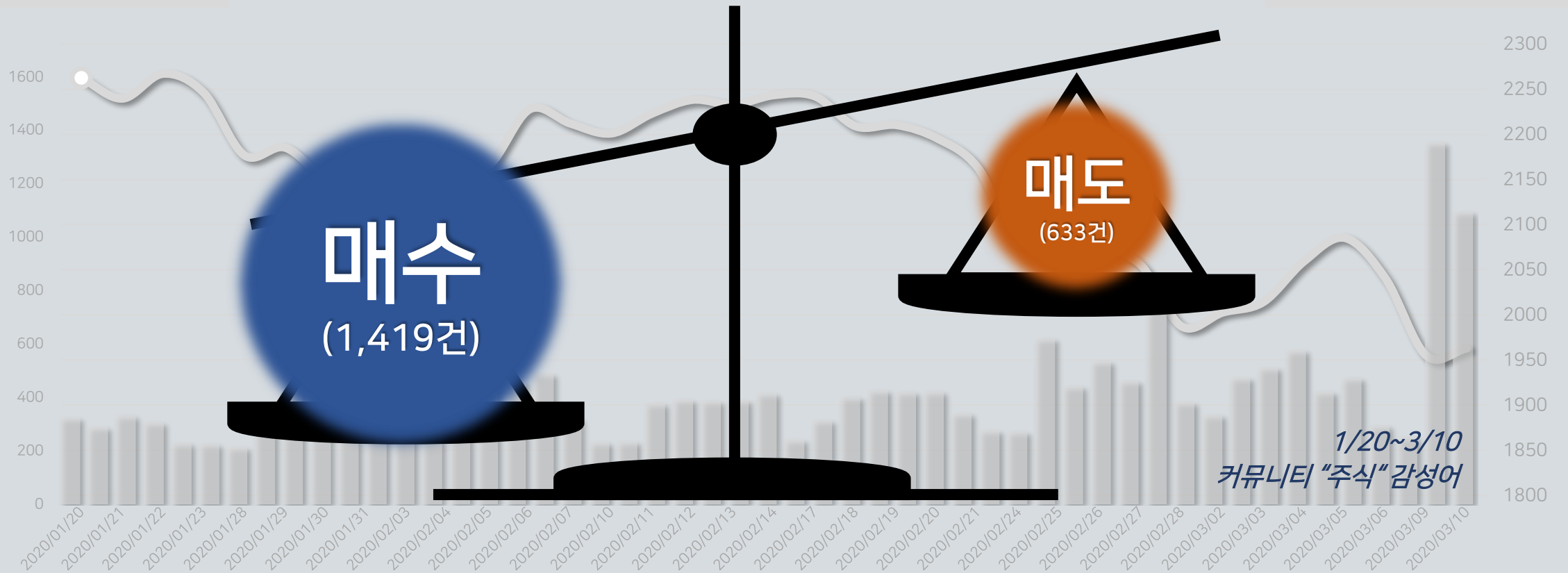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매수 타이밍”

“**삼성전자**를 사자”

대폭락을 맞이하면서도 하나 둘 **매수**를 외친 사람들

1.20 국내 코로나 첫 확진

3.10 WHO 팬데믹 선언 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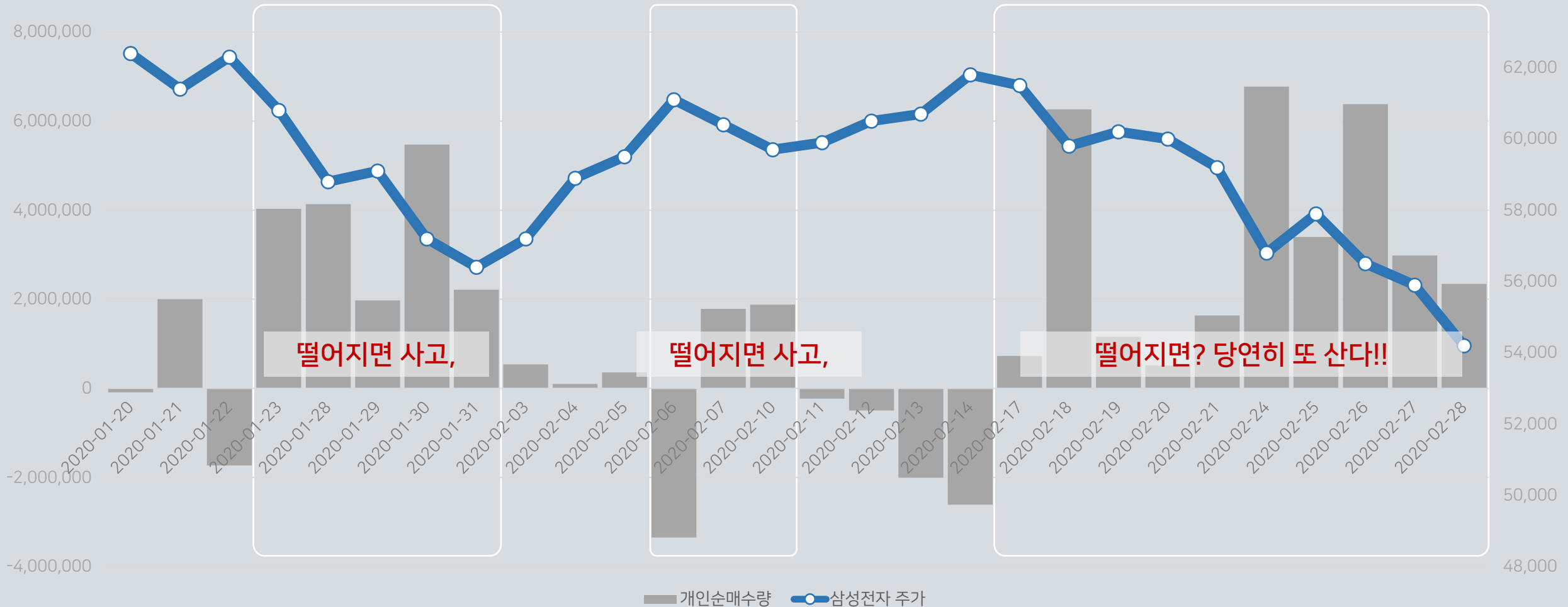


*Source: 코스피 증가, 한국거래소

*Source: 커뮤니티 연관어, 소셜메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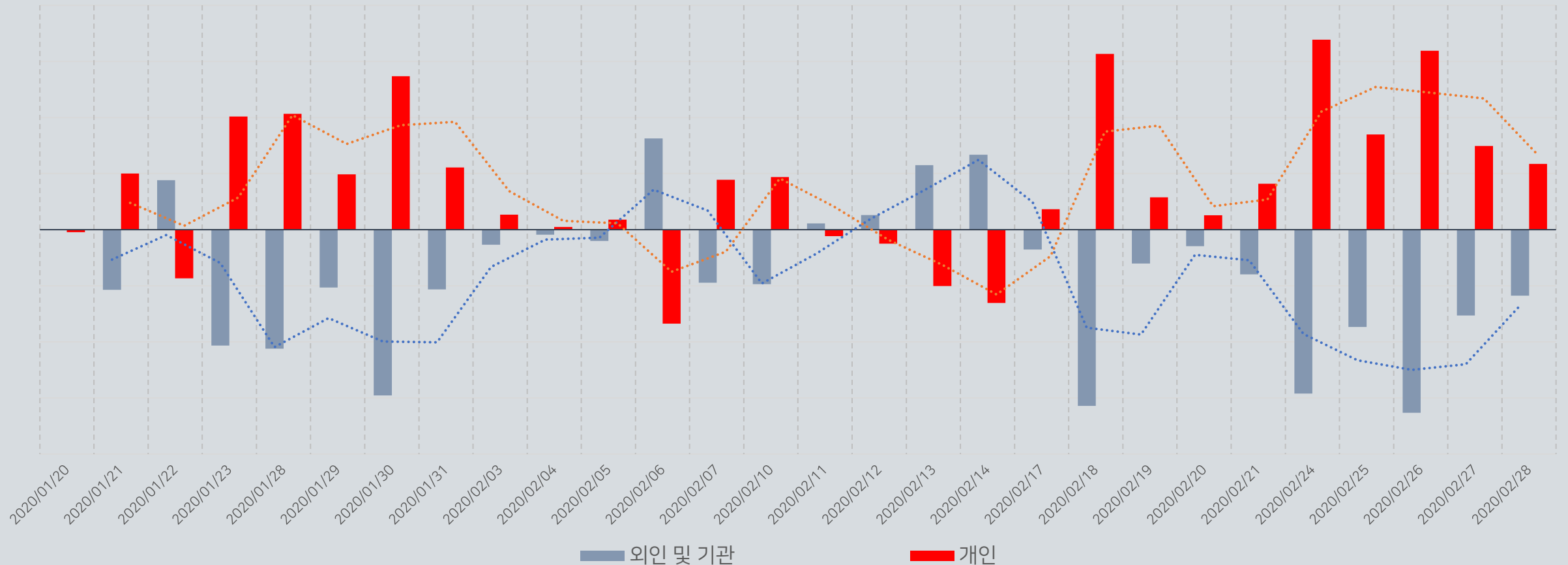
주) 코스피 지수는 공휴일 데이터가 없으므로 동 기간 동안 전체 일단위인 SNS 데이터와는 단순 추세 확인만을 요망

실제로 1~2월 **삼성전자 주가**와 **개인 매수량**을 비교해보면,
개인투자자가 삼성의 하락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



*Source: 삼성전자 종가 및 투자자별 순매수량, 한국거래소

심지어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외인 및 기관이 던진 주식을 그대로 매수하는 **진풍경**이 연출



*Source: 삼성전자 증가 및 투자자별 순매수량, 한국거래소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를 일컫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특정 기간을 지칭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지칭한 것은
2020년 3월 6일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언급한 것으로 추정

(*출처: YOUTUBE 소소하게크게)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언론 역시 관심있게 주목

E 이데일리

[슈퍼개미가 움직인다]코스피에 개인 돈 9兆 몰렸다

그동안 주식을 외면했던 개인 고객들이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
둘씩 찾아 ... 를 보이는 데도 개인투자자는 곳곳하게 12거래일
4634억원 매수했다.

2020. 3. 4.

나 국내 첫 확진 후
피 매매동향 8조 7천
7월~3월 3일 기준

M 매일경제

폭락장에서 9조 매수한 개미들... '대박'일까, '쪽박'일까 - 매 일경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지난 2월 한 달 새 코스피 주식 4조8천973억원어치
를 사들이며 지난 1999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순매수



H 한국경제

외국인이 던진 삼성전자, 개미 '4兆 싹쓸이'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이 기간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눈길 ... 투자가 묶이면서 증시 조정기를 틈타 개인의 여유자금이 주식시
장으로 유입되고 ...

2020. 3. 8.



C 조선비즈

올해 산 주식 벌써 15조원... 최대화력 '개미' 이번엔 웃을까

매수 주체는 크게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늘었
다는 것은 외국인 등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
탈은 증시에는 ...

2020. 3. 9.



SNS 상에서도 크게 회자되며 주식에 관심없던 **대중**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가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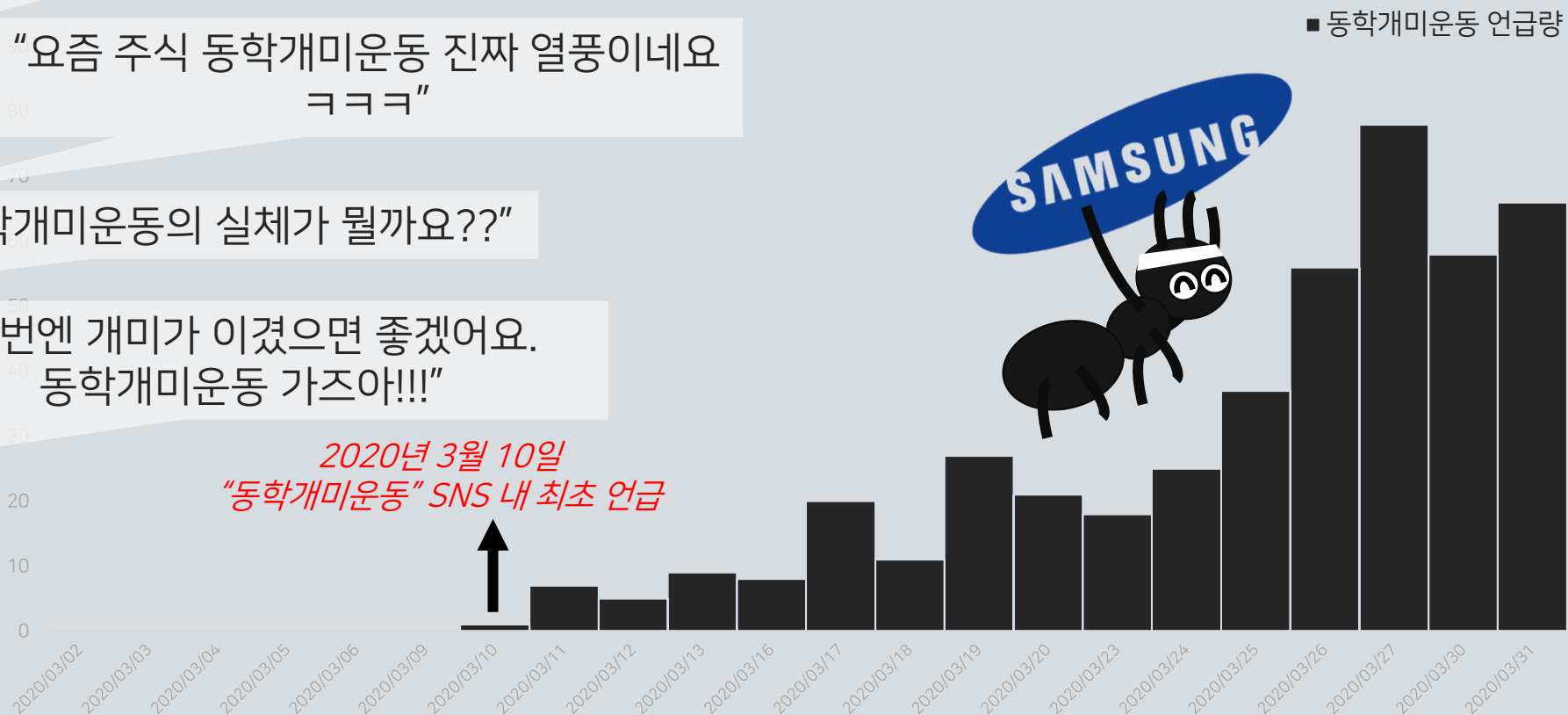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 재밌네요.”

“요즘 주식 동학개미운동 진짜 열풍이네요
ㅋㅋㅋ”

“도대체 동학개미운동의 실체가 뭘까요??”

“이번엔 개미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동학개미운동 가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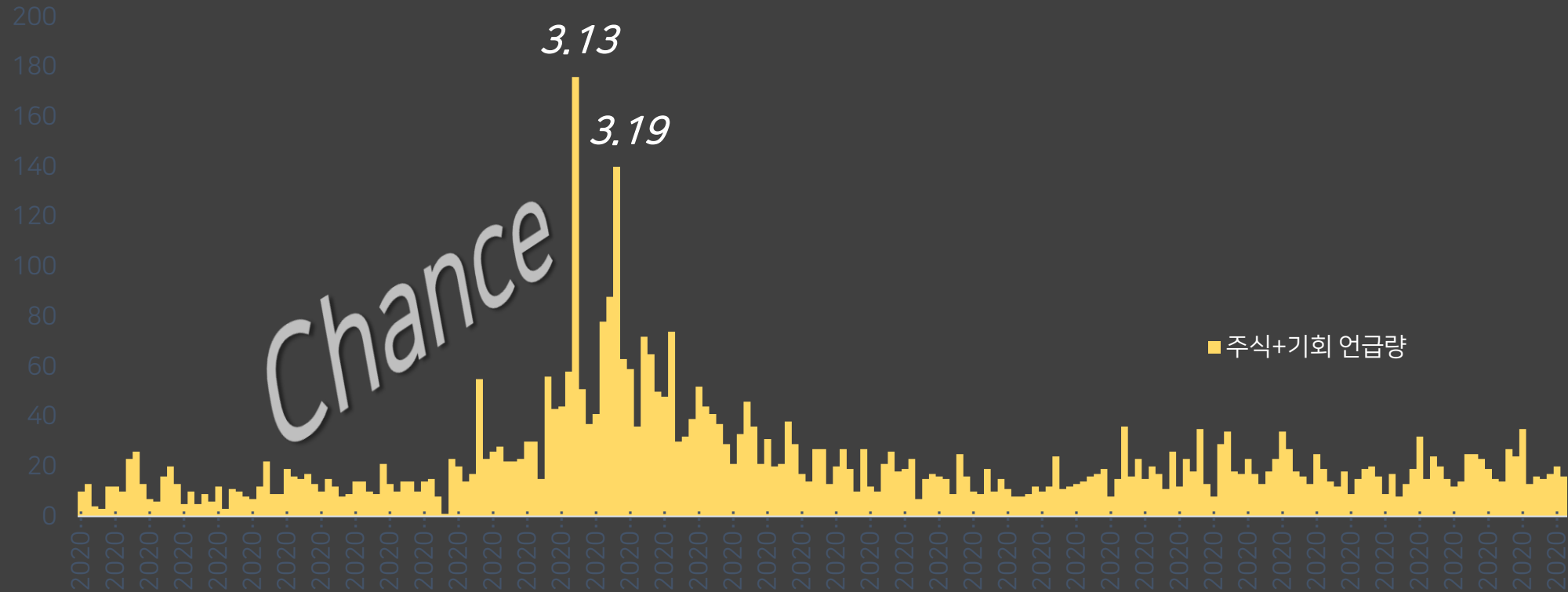
2020년 3월 10일
“동학개미운동” SNS 내 최초 언급



*Source: SNS 언급량, 소셜메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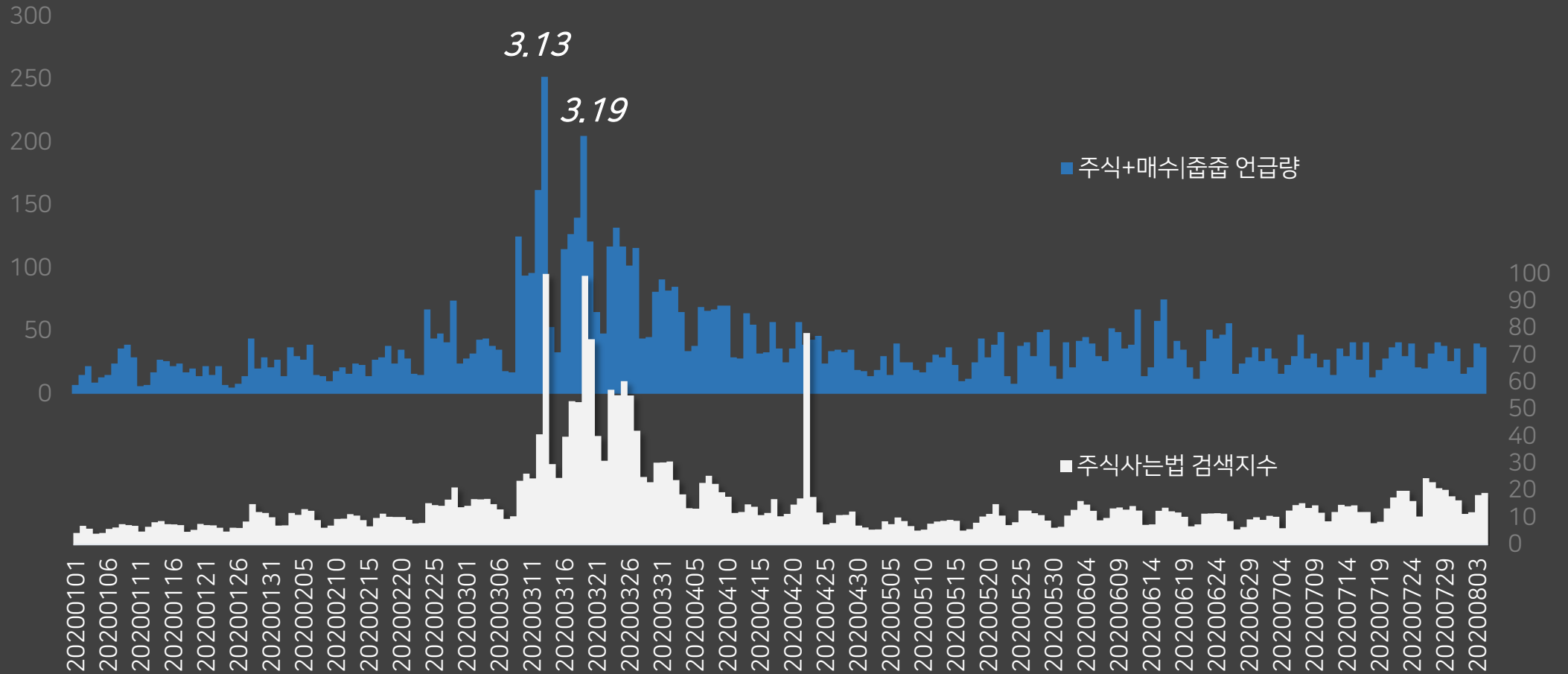
3월 11일 WHO 팬데믹 선언 이후
대중속으로 번진 주식 열풍

서킷브레이커 발동된 3/13, 3/19 커뮤니티 내 “기회” 언급량 최대



*Source: 커뮤니티 언급량, 소셜메트릭스

같은 시기 기존 투자자는 매수를 외치고, 한편에선 “주식 사는 법” 검색량이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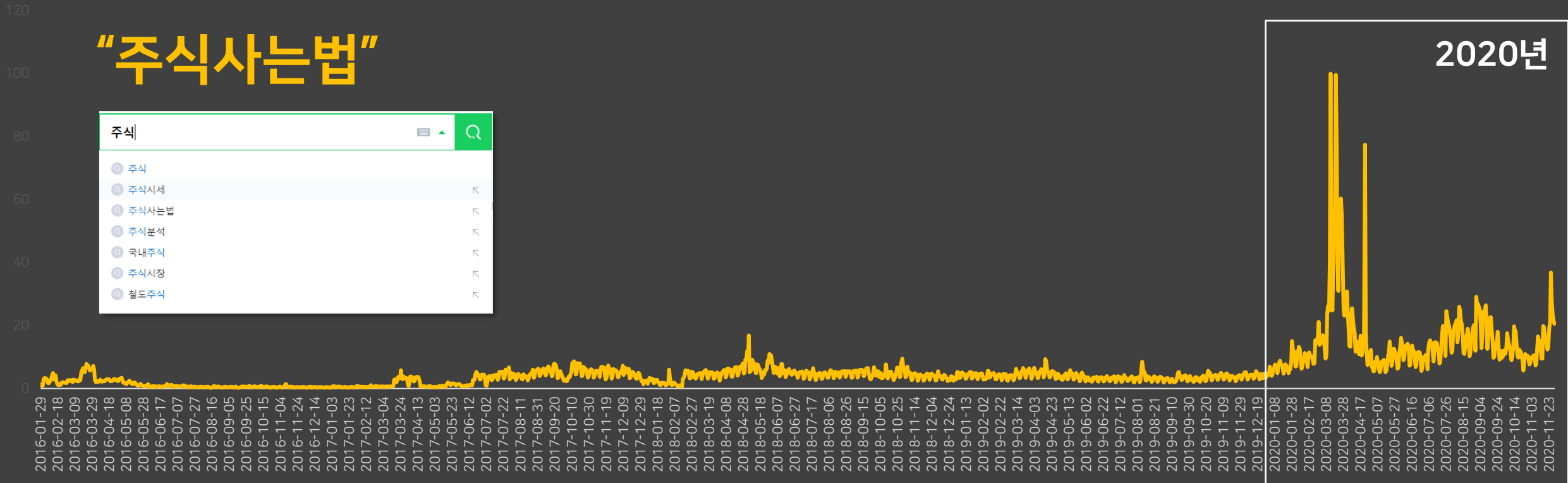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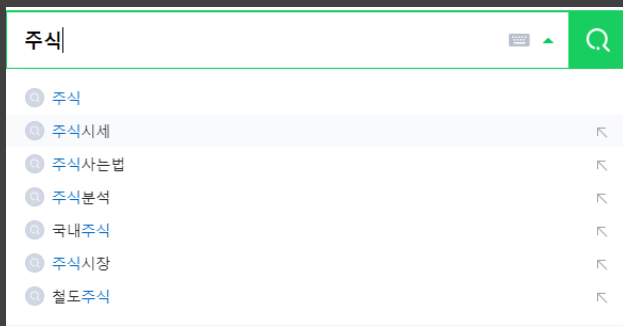
*Source: 커뮤니티 언급량, 소셜메트릭스

*Source: 네이버 검색 트렌드

주식사는법 검색량은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

'주식 사는 법'에 대한 일별 네이버 검색 지수

"주식사는법"



*Source: 네이버 검색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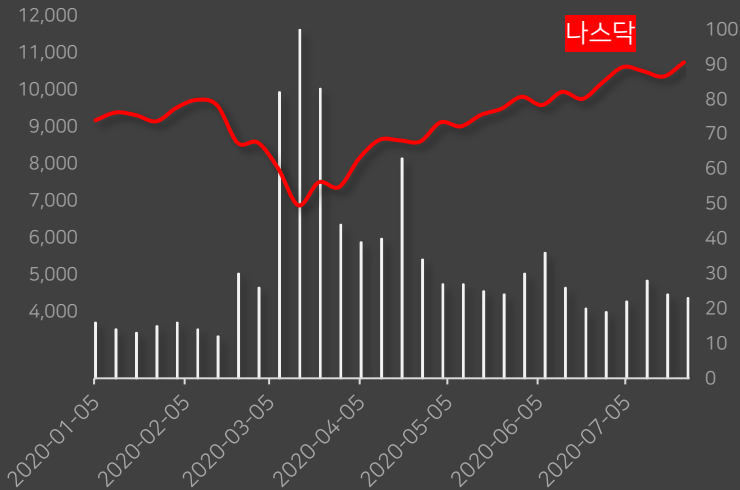
“주식사는법”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동안 주식을 전혀 몰랐던 **새로운 투자자**임을 의미
동학개미운동으로 지칭되던 **기존 투자자**에 이어
신규 투자자까지 대거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 동일하다는 것

(모두 자국말로 '주식 사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며 시장 진입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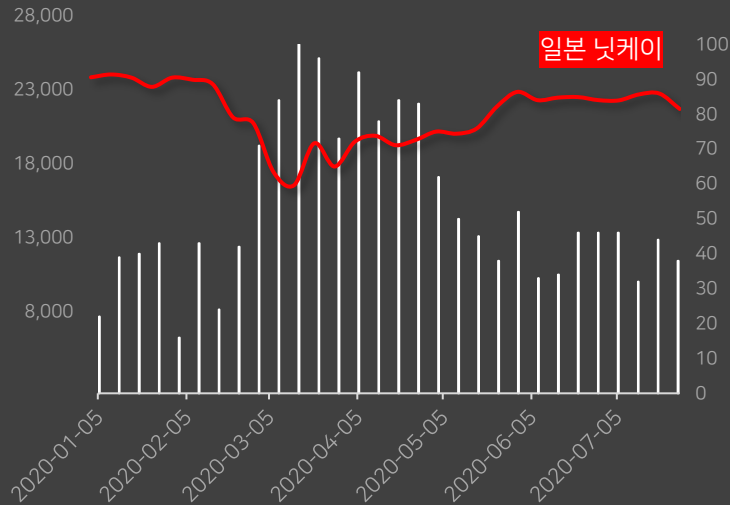
미국

How to buy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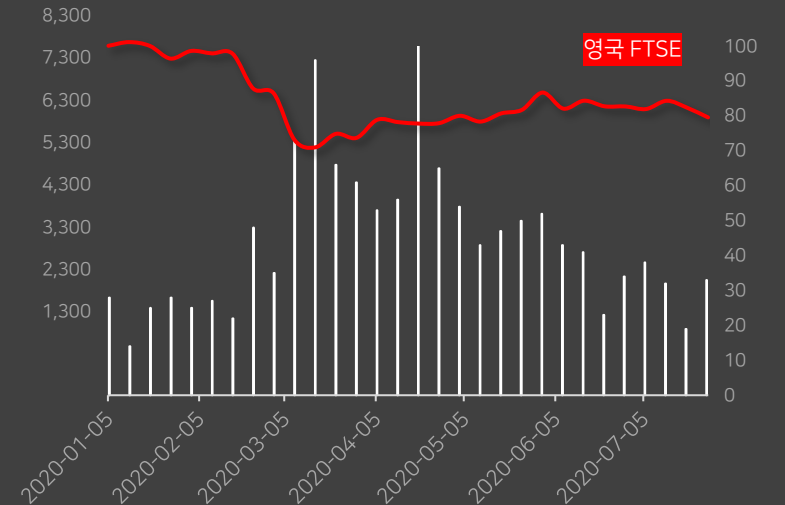
일본

株の買い方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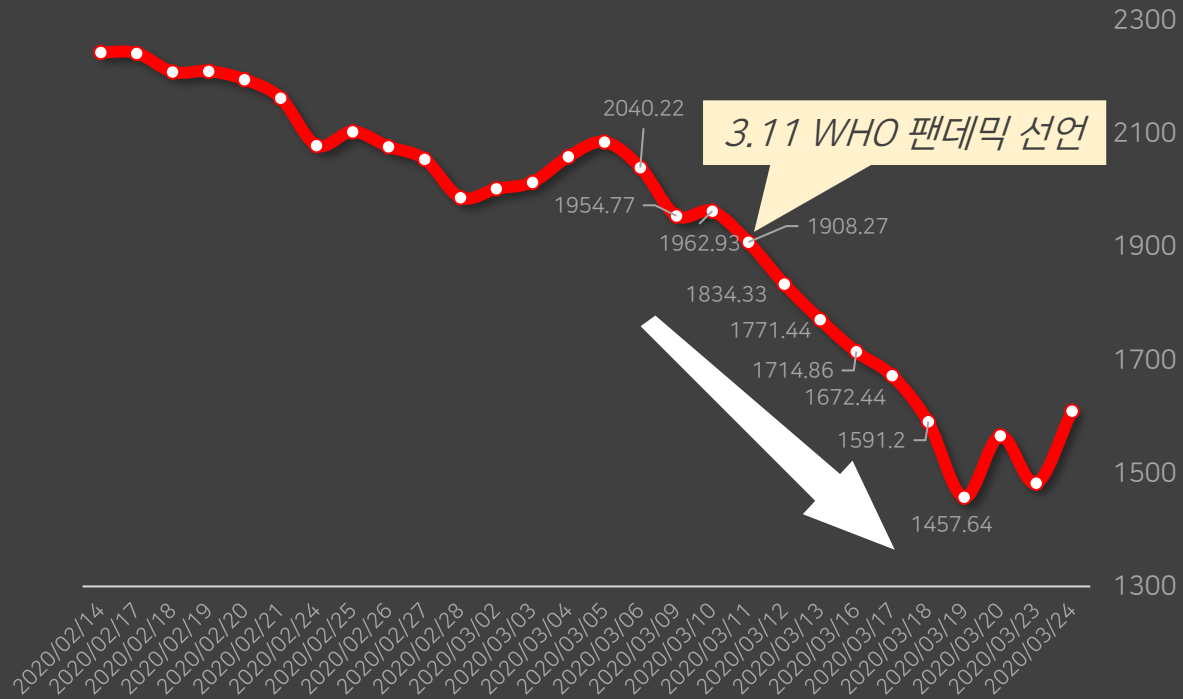
How to buy stocks



*Source: 국가별 구글 검색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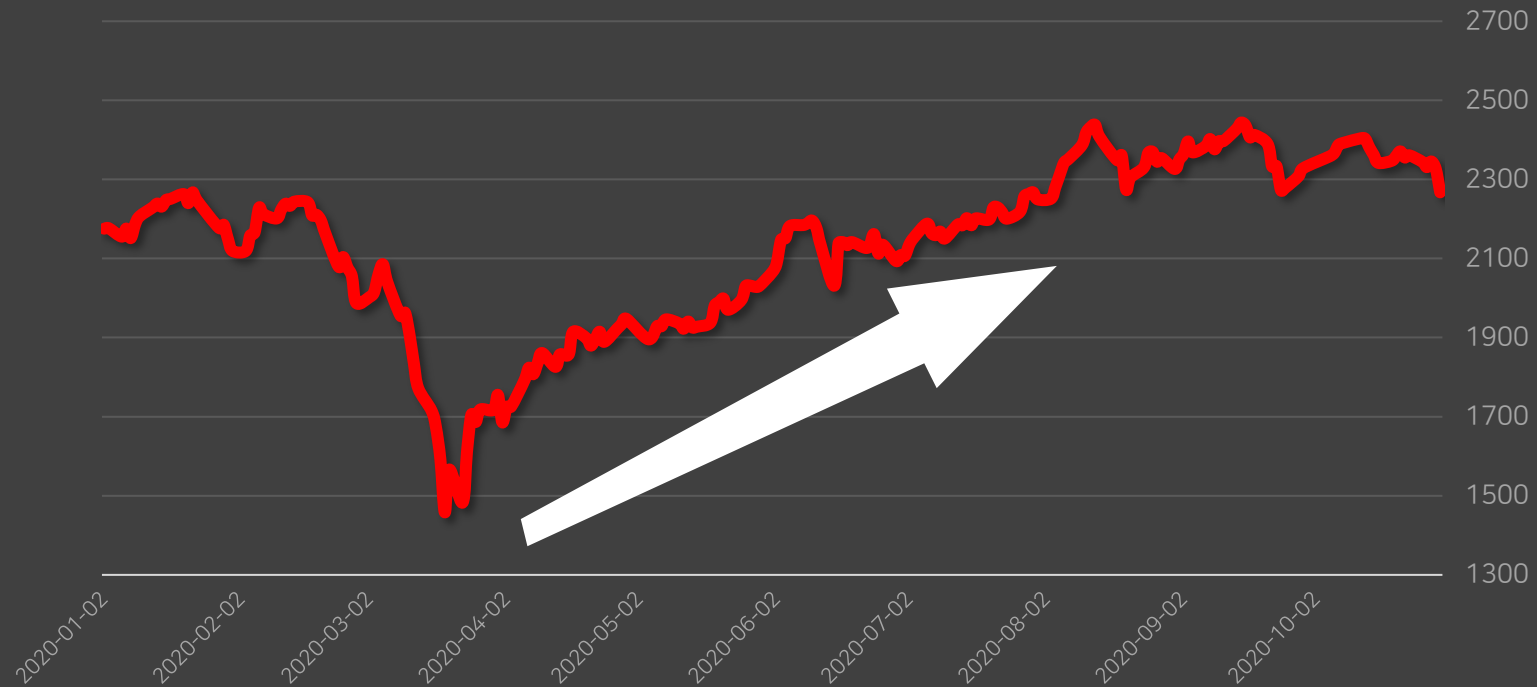
단 일주일 만에 최저점까지 빠르게 추락하는 증시

3월 11일(수) 1908.27 팬데믹 선언 → 3월 19일(목) 1457.64 최저점 도달



*Source: 코스피 종가, 한국거래소

3/19 최저점 형성 이후 단 195일만에 거짓말처럼 상승하는 주가



*Source: 코스피 종가, 한국거래소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들의 투자는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

10년 만에 온 기회 잡아야죠.
2년 전부터 모아온 총알 조금씩 쏩니다.

이번 년도는 그냥 지켜보다가
이런 인생의 기회가 오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베틱 구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새로운 주식 갑부 탄생 한다

왠지 정말 큰 기회인 것
같아서요

주식 투자 다시 이런 기회 없을 듯

”

코로나 쇼크가 내인생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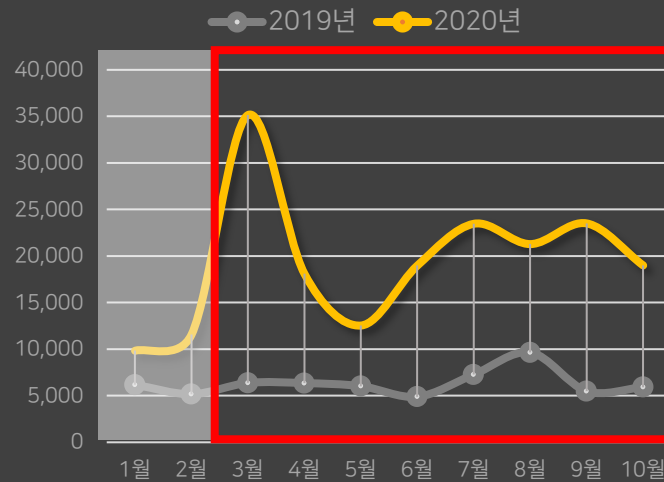
위기는 기회라고
10년 후에 부자 되어있을 수 있는건가요?

[3/13, 3/19 커뮤니티 내 “주식+기회” 원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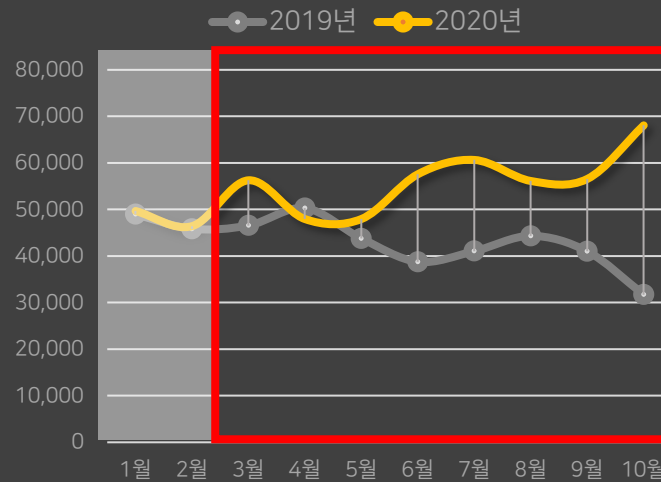
자,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월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주식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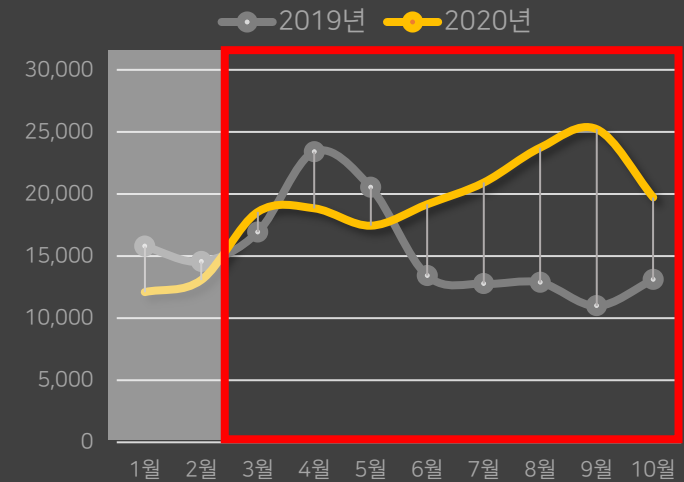
커뮤니티



트위터(RT제외)



인스타그램



[19년, 20년 SNS 채널 별 "주식" 언급량 비교]

*Source: SNS 채널별 언급량, 소셜메트릭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시장,
본격적인 금융 소비 시대가 다가오는 순간

SUMMARY

3월 기존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에 사상 최대의 신규 유입이 더해져
단기간에 투자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한 지점 발생.

신규 유입자의 특성 규명과 이들로 인해 변화된 시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이후부터 3월 증시 대폭락 시점까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주식 열풍이 시작되었는지 짚어 보았으며

다음 보고서에서는 3월부터 대거 입성한 신규 유입자의 정체를 규명하고,
이들의 유입 과정과 투자 행동 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To be continued...

End Of Document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

